

대학 사고와 표현 교육의 방향과 과제

- 조선대학교 <사고와 표현 I> 수업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

곽경숙**

|| 차례 ||

1. 머리말
2. 대학 사고와 표현 교육의 방향성
3. 조선대학교 <사고와 표현 I> 수업 운영 사례
 - 1) 교과 목표 및 수업 운영
 - 2) 성과 및 문제점
4. 남는 과제
5. 맺음말

【국문초록】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각 대학에서는 사고와 표현 관련 교과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사고와 표현 관련 교육은 그동안 많은 성과를 보였지만 문제점 또한 많은 형편이다. 본고는 이 중에서도 교과의 방향 정립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이들 교과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사고와 표현의 관계 맺음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이들 교과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간추려 보고, 조선대학교의 <사고와 표현 I> 수업 운영 사례를 통해 이를 확인해보았다. 특히 조선대학교 <사고와 표현 I>이 지향한 통합교육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이와 유사한 운영을 계획하는 다른 대학에 시사점을 주고자 했다. 교육의 결과는 수요자인 학생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인 만큼 강의 종료 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중요한 분석 자료로 참고했다.

사고에서 표현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개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

* 조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초빙객원교수.

된다. 사고의 틀의 차이로 인해 개인에 따라 사고와 표현의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사고와 표현 관련 교육에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식하고, 발표와 토론을 통해 객관적 의미를 발견해가도록 해야 한다.

조선대학교 <사고와 표현 I>이 거둔 성과는 설문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비판적 사고력과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들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드러난 중요한 문제점은 텍스트 내용 이해와 토론에 중점을 두다 보니 글쓰기가 소홀히 다루어짐으로써 통합학습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살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주당 2시간의 15주 수업이라는 짧은 시간에 기인하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

이 밖에 사고와 표현 관련 교과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나치게 실용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과 수업 중 행해지는 토론 방식이 아직도 상당수 형식논리학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형식논리학적 접근으로는 다양한 입장 차이를 지닌 개인들이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어려우므로 신수사학 이론 등이나 공감적 수사 등과 같은 다양한 수사 이론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의사소통 교육은 개인에게 올바르게 적용되었을 때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임상 치료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학습자 개개인의 변화를 면밀히 고찰하고,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의 방향과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개별적 관찰과 실험 결과가 축적될 때 사고와 표현 관련 교과도 보다 체계화할 것이다.

주제어 :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사고와 표현, 통합교육, 조선대학교 운영 사례

I. 머리말

지식정보사회로 진입하면서 지식의 생산과 소비의 속도가 빠르게 변화함으로써 지식의 양적인 습득보다는 유용한 지식을 선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나 이를 다원화한 현실에 잘 적용해나가는 능력이 중요해졌다. 이와 함께 복잡다변해가는 현실 속에서 다양한 개성을 지닌 구성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기 위해 의사소통능력도 중요한 능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오늘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제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비판적이고도 창의적인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을 갖춘 멀티(multi)형 인간이다. 이러한 인식은 입사에서 면접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진 다거나, PSAT, MEET, DEET, LEET 등과 같은 각종 시험에서 영어나 전공 성적보다도 언어나 사고 영역을 중심으로 비판적 사고력이나 문제해결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현상에서도 쉽게 드러난다.

사회의 변화와 요구로 인해 대학의 교양교육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것은 교양교육의 근간이 되는 인문학 교육에 대한 반성과 케를 같이 한다. 인문학적 사고능력은 ‘어떤 기본적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이다. 부단한 성찰과 점검, 비판과 연결의 과정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인문학적 사고의 모습이며, 이런 과정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를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인문학의 기본적 사고훈련이다.¹⁾ 그러므로 대학의 인문학 교육은 전공 지식을 전수하기보다, 텍스트를 창조적으로 읽고, 질문을 던지고, 이에 답하면서 자신의 해석을 잘 만들 줄 아는 능력을 키워주는 데 있어야 한다. 사실보다는 해석을, 암기보다는 비판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을, 텍스트의 요약보다는 그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무엇을 찾아내는 안목을 키워줌으로써 대학 교육의 기초를 마련해주어야 한다²⁾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대학 사회에 확산됨으로써 사고와 표현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교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대학별로 교육목표나 커리큘럼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사고와 표현에 관계된 교과 중 일부는 필수화되었고, 전담 기구가 개설되기도 했으며, 전담 교수를 채용하

1) 도정일, 『실천인문학의 한 방법』, 『한국사고와표현학회 학술대회논문집』(사고와 표현학회, 2007.10), 10쪽.

2) 홍성욱, 『인문학적 사유의 창조성과 실용성』, 『동향과 전망』 통권 제44호(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00. 3), 223쪽.

는 대학도 생겨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³⁾

하지만 아직도 변화의 과정 중에 놓여있다 보니 이들 교과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다.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마련되지 못해 교과와 방향과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재와 강의 프로그램, 교수법, 평가 등에 관한 연구가 부족해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교 당국의 행정적 지원이 부족해 교육 환경이 열악하고, 수강 인원도 지나치게 많이 배정되어 개인적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이들 교과에 대한 현황을 고찰하고 여기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양질의 수업을 위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중에서도 사고와 표현 관련 교육의 방향성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이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선대학교 <사고와 표현 I> 한 학기 수업 운영 사례를 참고할 것이다. 조선대학교는 기존에 국어국문학과 주관으로 운영하던 <삶과 글> 교과를 확대 개편하여 <사고와 표현> 강좌를 개설했다. 한 학기 주당 2시간으로 운영되던 <삶과 글>을 두 학기에 걸친 주당 2시간의 필수 과목으로 바꾸는 한편, 운영의 주체를 교무처 소속 교육과정팀으로 전환함으로써 이 과목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교과명을 <사고와 표현>이라 명명하고, 사고와 표현 관련 과목들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기보다 이들을 통합하여 교육함으로써 각 영역의 상호작용에서 유발되는 상승효과를 얻고자 했다. 그러므로 <조선대

3) 사고와 표현 교육과 관련된 교과에는 다양한 이름의 교과목들이 있다. 김창진(2007)에서는 글쓰기에 관련된 강좌명으로 33개가, 말하기 12개, 독서 13개, 종합국어 21개가 조사, 제시되었다. 이들은 모두 국어영역에 포함된다. 그런데 최근 사고와 표현을 다루는 교과가 통합적 성격을 지닌 형태로 나아가는 추세를 감안하면 사고를 다루는 교과나 학제적 세미나 등도 이에 포함될 수 있겠다.(이진남(2008.11:59) 참조) 이렇게 볼 때 사고와 표현 관련 교과란 교과명은 달라도 글쓰기, 말하기, 독서, 사고, 학제적 세미나 등의 영역에 포함되는 교과들이라 할 수 있다.

학교>의 사례는 사고와 표현 관련 교과를 통합해서 운영할 경우에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⁴⁾

2. 대학 사고와 표현 교육의 방향성

1990년대 들어 학문의 실용화 현상이 팽배해지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교양국어>가 존재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각 대학들은 이를 대체하는 <글쓰기> 강좌를 개설하였다. <글쓰기>는 대학의 학문 활동에 필요한 도구 교과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글쓰기 능력 신장이라는 실용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지식정보화 사회로 진입함으로써 표현 능력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보를 취합하여 유용하게 변형할 수 있는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 필요하게 되자, 사고와 표현과 관련된 여러 교과를 동일한 범주에 묶어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새로운 풍토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이로써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같은 언어 사용 능력을 도모하는 영역과 비판적 사고나 논증 등의 사고력 신장 영역을 한 카테고리 묶어 연계, 또는 통합하는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다.⁵⁾

4) 조선대학교의 <사고와 표현> 강좌는 글쓰기나 말하기와 같은 개별 강좌의 성격을 탈피해 언어 사용 영역과 사고하기 영역을 통합한 교육을 지향한다. 이것은 최근 사고와 표현 교육과 관련해서 행해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5) 물론 학교에 따라 예전처럼 개별 교과 형태로 운영하는 대학들도 있다. 그러나 사고와 표현 교육을 강화한 대학들 중에서 이들 교과를 연계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숙명여대는 2002년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를 발족하여 1학기는 읽기와 쓰기를 통합한 수업을, 2학기는 발표와 토론 수업을 진행한다. 카톨릭대는 2004년에 교양교육원을 발족하여 지식기반능력 사회에서 필요한 핵심능력을 창의력(Creativity), 분석력(Analytical Competence), 문제해결력(Problem-solving Competence)으로 보고, 3학기 6학점 필수인 Cap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사고와 표현 관련 교과를 한 범주에 묶어 연계한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이다. 이에 비해 교과명 자체를

인문학의 위기마저 거론되는 이때에 사고와 표현 교육의 활성화는 실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들 교과와 활성화가 사회적 요구에서 비롯된 한 때의 유행이 아니라 대학의 학문 활동에 긍정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사고와 표현이 무엇이며, 인간의 삶에서 양자는 어떻게 결합되고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고와 표현 관련 교육이 지닌 의미를 파악하여 방향성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사고와 표현 활동은 복잡한 양상을 띤다. 먼저 사고 활동은 현실 세계에 대한 지각으로부터 비롯된다. 인간은 오감 능력의 한계로 인해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세계를 모두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의식중에 선택적으로 지각한다. 이 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개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그물’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신체적 구조, 동기, 갈망, 욕망, 흥미, 두려움, 바램, 과거 학습, 과거 경험, 훈련 등과 같은 것들로 이루어진 여과장치다. 사람들은 새로운 대상이나 사실에 접할 때면 이 틀에 부합되는 것들만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똑같은 세계를 보면서도 서로 다른 실체라고 생각하는 현상이 초래된다.⁶⁾

<사고와 표현>이라 하고 1·2학기 필수로 통합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려대학교와 조선대학교 등이 이에 해당한다.

6) Gail E. Myers & Michele Toleda Myers, 임철성 옮김,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집문당, 1995), 49쪽. 여과장치란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스키마와 유사하다. 인지심리학에서 스키마는 지각과정에서 특정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보도록 행위를 통제하는 메커니즘이다. 피아제는 인간의 지각과정이 동화와 조절이라는 두 가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동화란 새로운 지각내용을 이미 습득된 스키마에 맞추어 받아들이는 것이며, 조절은 새로운 지각내용에 맞추어 스키마를 새롭게 변형해나가는 것이다. 스키마는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같은 공동체에서는 공통의 문화나 환경을 공유하므로 동일한 사물과 사건에 대해 다른 사람과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에도 개인차가 존재한다. 특히 사회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의 경우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민태호, 『구성주의 패러다임의 측면에서 본 작문 이론의 전개 동향』, 『초등교과교육연구』 2집,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인간은 이렇게 지각한 내용을 토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사고과정을 밟는다. 그런데 이것은 언어를 매개로 이루어진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사고하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습관은 우리 내부에서 하나의 틀로 구조화된다. 그리고 이 구조화된 틀을 통해, 그리고 모든 왜곡, 과장, 삭제 등을 통해 인간은 세계를 바라보게 되므로⁷⁾ 인간의 언어 표현은 사고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⁸⁾ 그러므로 지각에서 사고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현실은 왜곡, 변형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고 과정을 거쳐 개념화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왜곡이 일어난다. 표현 과정이란 다양한 수사적, 맥락적 상황 속에서 전개되는 복잡한 문제 해결 과정이므로 수사적 상황을 분석해서 여기에 맞게 언어 표현을 활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사고와 표현 관련 교육의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는 보다 명확해진다. 먼저 선택적 지각을 유도하는 사고의 틀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만드는 한편, 이 틀의 차이에서 비롯된 개인차를 인식하고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익히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사고의 틀이 잘못된 경우에는 현실을 바르게 인식할 수 없다. 때로는 미신적 사고에 빠져들 수도 있으며, 개인 상호 간에도 현실 인식의 차이로 충돌

1999, 68~69쪽과 민영순 외, 『교육심리학』, 숙대출판부, 1980, 114~115쪽 참조)

7) 현실 세계는 무한하고 지속적인 데 비해 인간의 언어는 유한하며 분절적이므로 언어에 의해 표현되지 않은 무수히 많은 세계(etc)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언어 습관에 의해 만들어진 사고의 틀은 불완전하므로 이 틀을 통해 세계를 바라볼 경우 왜곡이나 삭제, 변형 등이 불가피하다.(아니톨 라포포트, 안동환 옮김, 『과학과 인간의 목표』, 한국문화사, 1995, 102쪽 참조)

8) 비고츠키는 언어를 각 구성원들이 사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신의 도구'라고 했다. 그에 의하면 사용되는 도구에 따라 사고방식은 달라진다. 인간의 언어 표현이 사고 내용을 형성하기도 하는 것이다. 예컨대 한글을 사용하는 한국 사람의 사고방식과 영어를 사용하는 서구 사람의 사고방식은 차이가 있다. 사고방식을 매개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다.(변영계, 『교수·학습이론의 이해』(학지사, 1999), 190~194쪽)

과 다름이 갖게 되어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기 어렵다.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무시하고 상황이나 논점을 극단적 방향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극한적 사고나 배타적 사고, 단정적 사고를 할 수도 있다.⁹⁾ 또한 개인차를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 사회에는 불통만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지 깊이 있게 생각하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할 것인가의 방법론적인 문제가 대두된다. 직접·간접 경험이 많을수록 사고의 틀은 정교해질 수밖에 없다. 강의 중에 할 수 방법으로는 텍스트 읽기의 강화가 있다. 인간, 사회, 문화, 자연 등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지닌 텍스트를 읽고 필자의 중심 사상을 찾아보는 한편, 공감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찾아보도록 한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사고의 틀을 정교하게 다듬어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습 구성원들과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활동은 의미 구성을 개인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인지 작용에 머물게 하지 않고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를 조정하고 만들어 가도록 함으로써 객관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회구성주의 관점에서 학습이란 지적으로 우수한 사회공동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내면화 과정이다. 비고츠키는 근접 발달영역¹⁰⁾이라는 용어를 소개하며 인지발달과정을 설명하는데, 교사와

9) 인간의 사고, 언어, 행동의 삼각관계를 연구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정신의 확립을 목표로 하는 일반의미론에서는 인간이 사실세계에 대한 확인을 거치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그릇되고 미신된 사고에 빠질 우려가 있음을 경고한다. 또한 사실세계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한 가지나 두 가지의 가치만 중시하여 이를 토대로 생각하고 표현하면 극단적 충동에 사로잡힐 수 있음을 강조한다.(하야카와, 『의미론』, 현음사, 1982, 53~56쪽과 193~208쪽 참조)

10) 근접발달영역이란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 발달수준과 성인의 안내나 우수한 또래의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수준의 차이를 말한다. 비고츠키는 잠재적 성장을 중시하여 이미 완수한 발달에 맞추어 학습목표를 정하는 교육

학생 간이나 학생 상호 간의 활발한 사회 작용을 통해 개인의 인지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좋은 학습이란 학습자의 잠재적 발달 수준을 파악하여 여기에 맞는 과제를 부여하고 학습 구성원들 간의 충분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지적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사고와 표현 관련 교육에서는 사고와 표현 모두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언어의 특성과 한계를 이해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언어 사용 능력을 함양하는 데도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언어 사용 능력 계발과 관련해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중등교육을 통해 오랫동안 학습해온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같은 언어 사용 기능 영역을 대학에서 또 다시 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¹¹⁾ 사실 언어 사용 영역에 대한 교육은 중등교육기관이 담당해야 할 몫이다. 하지만 입시 지향적 성격을 지닌 우리의 교육 풍토로 인해 오늘날 대학생들의 언어 사용 능력은 현저히 부족하다. 그러므로 대학별로 편차가 있겠지만, 대학 교육에서도 언어 사용 영역에 대한 교육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들 영역을 각각 독립해서 교육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해서 교육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남는다. 먼저 읽기-쓰기의 통합 교육은 양자가 지닌 유사점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는 견해가 많다.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읽기와 쓰기는 모두 사회적 상황에

에 대해 비판하였다.(변영계, 앞의 책, 188~190쪽)

11) '글쓰기'로 대표되는 국어 영역에 대한 교육은 대학의 대학다움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학교에 들어올 때 합격기준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대학 교육은 학술적 수준의 세미나 형태로 가야한다는 의견도 있으며(이진남, 2008.11:62-68), 학제적 성격을 강조할 경우 글쓰기의 중심이 되는 언어적 소통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면서 글쓰기 이전 단계인 사고의 문제로 글쓰기의 영역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신선경, 『대학 글쓰기 교육의 방향 정립을 위한 제언』, 『관악어문연구』,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2005, 53-54쪽)

서 이루어지는 의미구성 과정이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읽기와 쓰기를 하게 되고, 다른 학습자들과 소통하면서 협의과정을 통해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¹²⁾ 인지적 관점에서 볼 때도 쓰기 과제만 제시해주고 쓰게 하는 것보다 읽기 자료를 제시한 후 쓰게 하는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다. 읽기를 하면서 학생들은 인지적 경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대조함으로써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어 훨씬 수월하게 글쓰기를 할 수 있다. 지적 수준이 낮은 학습자일수록 읽기 활동 후 쓰기를 하는 것이 글쓰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토론이나 토의도 활자가 아닌 구두를 매개로 행해진다는 차이만 있을 뿐, 청자와 화자가 함께 의미를 구성해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읽기나 쓰기와 동일선상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읽기, 쓰기, 말하기, 사고하기와 같은 교육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보다 통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체는 부분의 합과는 다르다.”는 Gestalt 심리학의 주장처럼 언어 사용 기능 영역은 상호 보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교육했을 때의 산술적 합 이상의 효과가 있다.¹³⁾ 실제로 우리의 현실만 보더라도 우리가 처한 상황은 늘 총체적이고도 통합적인 형태로 존재한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고와 표현 능력이 총동원되어야 한다. 학습을 할 때도 학습자의 이해력은 듣기, 읽기, 국어지식, 문학 영역이 통합되어 형성되고, 표현력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말하기, 쓰기로 나타난다. 학습자의 언어 사용 능력은 영역이 통합된 형태로 수행된다.¹⁴⁾ 물론 이 모든 과정은 사고하기와

12) 이성희, 「한국어 교육에서의 읽기·쓰기 통합 교육 연구」, 『이중언어학』 제37호, 20086, 119쪽 참조.

13) 권낙원·김동엽, 『교수-학습 이론의 이해』, 문음사, 2005, 76쪽.

14) 이은미, 「국어능력 신장을 위한 영역통합 수행평가 방안」, 『새국어교육』, 2009, 285~287쪽 참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진행된다. 이렇게 보면 언어 사용 기능 영역과 사고 영역을 통합한 교육 방식이 훨씬 더 현실적이며, 더 큰 교육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교육방식이라 할 수 있다

3. 조선대학교 <사고와 표현 I> 수업 운영 사례

1) 교과 목표 및 수업 운영

조선대학교는 정보화, 세계화로 집약되는 현대 사회의 변화 추세에 따라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의 유기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체계적인 교과목으로 <사고와 표현> 교과를 개발하여 2009년 1학기부터 운영하고 있다. <사고와 표현>은 ‘교양과 전문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상위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창의적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종합적 사고력 함양이라는 하위목표를 두고, 1·2학기 2학점 필수인 단계적인 수업이 진행된다. 1학기에 행해지는 <사고와 표현 I>이 전 학과 모두 동일한 교재를 사용하여 교양교육을 강화한 형태로 진행되는 데 비해서, <사고와 표현 II>는 계열별 교재를 사용하여 전공에 근접한 교육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고와 표현 I>이 교양에 강조점을 두어서 전공과 무관하게 다양한 글을 읽고, 토론하고, 표현하는 기초적인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사고와 표현 II>는 좀 더 ‘전공’에 근접하여 전공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고능력과 표현능력의 신장에 중점을 둔다. 즉 <사고와 표현 I>에서는 문화적 교양인의 자세를 배우고, <사고와 표현 II>에서는 학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소질을 연마함으로써 ‘교양’과 ‘전공’ 사이에서 다리를 놓고자 하는 <사고와 표현> 교육의 본래의 기능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⁵⁾

이를 위해 교재 『사고와 표현 I』과 『사고와 표현 II』도 새롭게 개발했

다.¹⁶⁾ 『사고와 표현 I』은 크게 4부로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대학 생활과 창의적 자기계발’이라는 제목으로 대학생활의 포부를 세우고 자기계발의 방향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고와 표현 I>이 중등교육에서 벗어나 대학 사회에 막 진입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인 만큼 대학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구체적인 대학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점에 1부의 의의가 있다. 2부는 ‘인간과 사회’라는 제목으로 인간의 의미를 개인, 역사, 사회와 관련하여 탐구한다. 인간이 부딪치는 모든 문제는 인간의 삶에서 비롯되고, 개인이란 거대한 종적·횡적의 네트워크 속에 놓여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인간과 사회는 대학생으로서 한 번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주제이다. 3부와 4부는 각각 ‘문화와 예술’, ‘자연과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삶의 결과물인 동시에 인간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들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는 단원이다.

각 부는 3~4개의 장으로 구분된다. 각 장에는 주제와 관련한 읽기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하는 사고와 토론거리가 제공되어 있어 각 주제별로 깊이 있게 사고하고, 토론하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공인이 되기 이전에 교양인의 기초를 다져놓을 수 있도록 한다.

『사고와 표현 I』의 특징은 읽기, 쓰기, 사고와 토론하기 등이 부록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교과외의 개설 취지에 맞게 언어 사용 영역을 수업 시간에 직접 다루기보다는 참고 수준으로 돌리고, 이보다는 읽기 텍스트를 중심으로 각각의 영역을 통합하여 교육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사고와 표현 I』의 차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5) 김경숙 외 13인, 『사고와 표현 I』(조선대학교 출판부, 2009), 머리말 참조.

16) <사고와 표현 II>는 지금도 진행 중이므로 본고에서는 <사고와 표현 I>에 국한하여 고찰할 것이다.

<p>제1부 대학생들과 창의적 자기계발</p> <p>제1장 알찬 대학생활을 위하여</p> <p>제2장 창의적 자기계발을 위하여</p> <p>제2부 인간과 사회</p> <p>제1장 인간과 지식</p> <p>제2장 역사와 역사의식</p> <p>제3장 개인과 사회</p> <p>제4장 한국사회</p> <p>제3부 문화와 예술</p> <p>제1장 문화란 무엇인가</p> <p>제2장 대중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p> <p>제3장 예술의 본질</p> <p>제4장 예술과 사회</p> <p>제4부 자연과 과학</p> <p>제1장 과학적으로 사고한다는 것</p> <p>제2장 과학이 만든 세상</p>	<p>제3장 과학기술과 인접학문</p> <p>제4장 너무나도 과학적인 현대사회</p> <p>부록</p> <p>제1부 글 읽기</p> <p>I. 글 읽기 방법</p> <p>II. 읽기 후 활동</p> <p>III. 인터넷 자료 읽기</p> <p>제2부 글쓰기</p> <p>I. 우리말 정서법과 문장 바로 쓰기</p> <p>II. 글쓰기의 과정과 전략</p> <p>III. 글쓰기와 윤리</p> <p>제3부 사고·토론·발표하기</p> <p>I. 비판적으로 사고하기</p> <p>II. 토론하기</p> <p>III. 발표하기</p>
---	---

2009년 1학기 <사고와 표현 I> 교과는 1학년 전과 공통 필수로 분류되어 134개 분반이 개설되었고, 이를 위해 48명의 초빙교수 및 강사가 투입되었다. 공통의 강의계획서는 없었으나, 예시된 강의 계획서를 참고하여 각 장에 수록된 읽기 자료 중 담당 강사 재량에 따라 선별한 텍스트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 글쓰기를 병행하는 형태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2009년 1학기 수업에서는 교수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각 장별로 한 두 개의 읽기 자료가 선별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예시된 강의계획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1〉 2009년도 1학기 〈사고와 표현 I〉 강의 계획서 예시

주	진도표	강의 내용	부록 활용	평가대상
1	1부 1장	*읽기자료3: 책 읽는 바보 이덕무 -(토론) 우리 사회의 독서 문화 -(과제) 4년의 독서계획 및 목록표 작성 (알라딘 참조하여 도서내용 소개)	3부 2장 : 토론하기	토론 과제
2	2장	*읽기자료3: 어리석음을 가르치라 -(토론) 질문하지 않는 이유 -(쓰기) 자기분석표 작성하기	2부 1장 : 우리말 정서법	토론 쓰기
3	2부 1장	*읽기자료1, 2, 3 -(읽기) 1, 2, 3에 밑줄 치고 각각 요약하기 -(쓰기) 1, 2, 3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요약문 작성하기	1부 1장: 글 읽기 밑줄 긋기	쓰기
4	2장	*읽기자료2, 3: 인공낙원 백화점 -(쓰기) 읽기 자료3의 질문형식을 이용하여 읽기자료2의 내용을 정리하기	1부 1장: 글 읽기 노트필기하기 포스트잇 사용하기	쓰기
5	3장	*읽기자료1 과시즘의 이데올로기 -(토론 및 발표) 인터넷 용어의 개념 정의하기 : 좌빨, 꼴보수 등등 -(쓰기) 지적 인종주의를 정의해보자	3부 1장: 비판적 사고	토론 발표 쓰기
6	4장	*읽기자료1: 천황과 전두환 -(조사 발표) 독일, 일본, 광주 민주화 운동의 처 리 과정 비교	2부 3장: 글쓰기와 윤리 3부 3장: 발표하기	자료조사 발표
7	3부 1장	*읽기자료2: 매체와 문화 -(토론) 구술, 문자, 뉴미디어 생활양식의 변화 -(쓰기) <미녀들의 수다> 감상문	3부 1장: 비판적 사고 3부 2장: 독서 감상문 쓰기	토론 쓰기
8	2장	*읽기자료1. 2 -(발표) 문화산업과 팝아트에 대한 인터넷 자료 를 찾아서 정리해서 발표해보자.	1부 2장: 인터넷 자료 읽기	쓰기 토론
9	3장	*읽기자료3: 김현의 글 -(토론) 최근에 발표된 시와 소설을 읽고 토론해 보자.	2부 2장: 독서 토론하기	토론

10	4장	*읽기자료3: 예술을 바라보는 시선들 -(토론) 네 가지 시선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나머지들을 비판해보자.	3부 1장: 토론하기	토론(주장과 반론)
11	4부 1장	*읽기자료1: 과학과 예술 -(쓰기) 과학과 예술의 비교표 작성 -(토론) 예술가와 과학자의 입장 비교	1부 1장: 글 읽기 펼칠 곳기	쓰기 토론
12	2장	*읽기자료2: 과학의 정치적 악용 사례 -(토론) 사회적 다윈주의와 우리 사회의 경쟁 지상주의의 문제점	3부 1장: 토론하기	토론
13	3장	*읽기자료3: 통계자료 -(조사 발표) 통계 및 설문 조사의 허점, 비판적 읽기에 대해서	3부 1장: 비판적 사고	발표
14	4장	*읽기자료1: 산업화의 빛과 그늘 -(감상) <모던타임즈>를 감상하고 그 내용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보자.	3부 2장: 독서 감상문 쓰기	쓰기
15		기말시험: 과제를 책으로 엮기		

2) 성과 및 문제점

<사고와 표현 I>은 짧은 읽기 자료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수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읽기는 분석적 읽기가 된다.¹⁷⁾ 분석적 읽기 후에는 필자의 생각에 공감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찾아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여과장치와 사고의 틀의 차이에서 비롯된 개인별 사고 차이를 찾아

17) 독서법의 대가 애들러는 읽기의 유형을 단계별로 점검 독서(훑어 읽기), 분석 독, 신토피컬 독서로 구분한다. 점검 독서가 빨리 훑어 읽으면서 필요한 책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거나 전체적인 윤곽을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 읽는 독서라면, 분석적 독서는 꼼꼼히 집중적으로 들어가면서 책의 내용을 비판하고 분석하는 읽기이다. 마지막으로 신토피컬 독서는 주제에 맞추어 다양한 책을 읽는 읽기이다.(모티머 J. 애들러/민병덕 역, 『독서의 기술』(범우사,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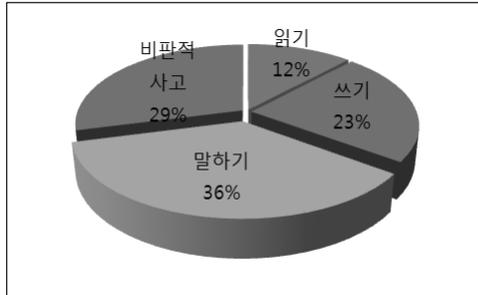
내는 작업이다. 필자와 자신의 견해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이 어디이며, 왜 그러한 차이가 발생했는지 분석해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분석적 읽기는 수능을 준비한 대한민국 학생들이라면 잘 훈련된 분야라 생각된다. 하지만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를 검토해보면 학생들은 이를 어렵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필자와의 생각 차이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밝히지 못한다. 학생들의 논평 능력이 뒤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습자를 수동적 위치에 머물게 하는 중등교육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본다. 입시 지향적 특성으로 인해 중·고등학교 때 토론의 경험이 있는 학생은 별로 없다.¹⁸⁾ 책을 읽고 토론하는 수업 대신에 교사의 지도나 참고서의 해설 등을 통해 텍스트를 이해하는 수업을 받다 보니 자신의 생각에 자신이 없고 텍스트에 대한 비판이 어렵게 느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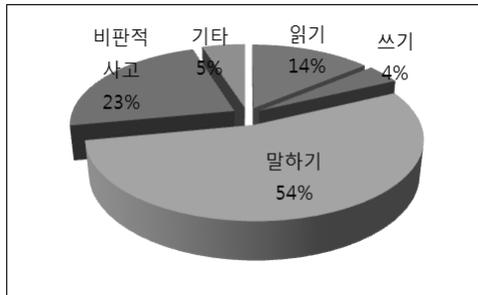
한 학기 동안 읽고, 발표하고, 토론하면서¹⁹⁾ 학생들은 개인마다 사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고, 또 그 차이점이 무엇이며, 왜 이러한 차이가 생기게 되었는지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이와 함께 차이점을 표현하는 방식도 개인마다 다르다는 점과 표현할 때는 수사적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도 학습할 수 있었다. 강의 마지막 시간에 행해진 설문 결과를 보더라도 <사고와 표현 I> 교과는 당초에 의도한 비판적 사고력과 의사소통능력을 향상하는 데 기여했다고 본다.

18) 필자가 맡은 50명 규모의 반에서 중·고등학교 때 토론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서너 명 정도에 불과했다.

19) 텍스트 읽기는 주로 과제로 주어졌다. 2~3쪽의 짧은 자료라 해도 대체로 난이도가 있는 자료라 수업 시간에 읽고 이해하고 토론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림 1〉 자신 없는 분야



〈그림 2〉 이 수업을 통해 가장 많이 향상된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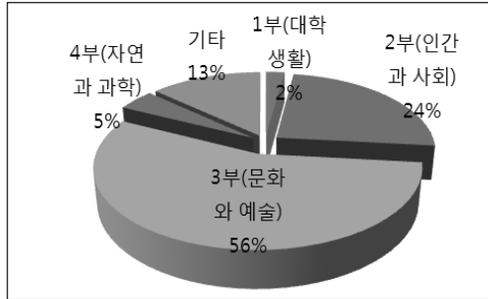
〈그림1〉과 〈그림2〉는 2009년 1학기에 <사고와 표현 I>을 수강한 경영학부 한 학급 26명, 항공우주학부 한 학급 25명, 기초의과학부 한 학급 49명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학과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큰 차이가 없어 통합하여 분포도를 작성했다. 그림에서 보듯이 평소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영역은 말하기이며, 이 수업을 통해 향상된 능력으로 말하기에 이어 비판적 사고를 들고 있다.

<사고와 표현 I>이 거둔 성과도 많지만, 수업 운영을 통해 또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우선 교재가 지닌 문제이다. <사고와 표현 I>과 같이 텍스트 이해와 이에 대한 토론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에서 읽기 자료는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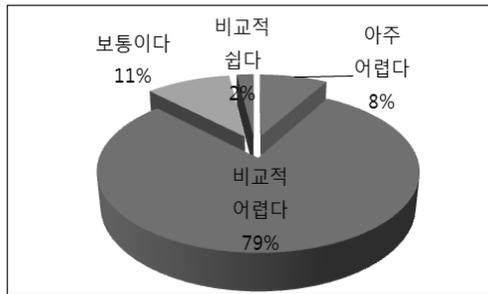
업 운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정되어야 한다. “교양있는 전문인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인문적 쟁점 주제들을 선정”해야 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눈높이와 문제의식에 맞추어 실질적인 사유 훈련에 적합한 텍스트를 선정”²⁰⁾해야 한다. 그런데 『사고와 표현 I』에 수록된 자료들은 전자는 충족하고 있으나 후자의 요건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즉 인문학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자료들이지만, 깊이 있는 독서 경험이 부족한 신입생에게는 고난도로 여겨지는 자료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전문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발췌된 글이기 때문에 전후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이 점은 향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²¹⁾ 고난도의 지문이나 학생들의 관심과 유리된 읽기 자료는 학생들의 흥미를 저하시켜 수업 참여도를 저조하게 할 뿐 아니라, 교수자의 수업 진행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된다. 기초의학과 학생 49명만을 대상으로 읽기 자료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다수 학생들은 읽기 자료에 대해 어렵다고 답했으며, 가장 어려웠던 단원으로 문화와 예술 단원을 들었다. 이것은 사회나 과학 영역이 중등 교육의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교과에서 다루어지는 데 비해서 문화와 예술 영역은 그렇지 않은 데에 기인한다고 여겨진다.

20) 신상규, 『독서토론을 통한 통합인문학교육』, 『한국사고와표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08.10), 72쪽.

21) 공급자와 수요자의 생각은 많이 차이날 수 있다. 이 간극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실제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자가 교재 집필에 관여해야 한다. 조선대학교의 경우 <사고와 표현> 교과가 2009년에 처음으로 개설·운영되다보니 교재 집필은 14명의 전임교수진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학생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읽기 자료가 여러 편 있었다. 이것은 워크숍 등을 통해 언급되었고, 차후에 보완될 예정이다.



〈그림 3〉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단위



〈그림 4〉 읽기 자료의 난이도

읽기 자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난이도가 상, 중, 하로 구분되는 다양한 읽기 자료를 같은 단원에 실어서 학생들의 특성과 수준에 따라 적절한 자료를 선택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문화와 예술과 관련된 자료는 다른 영역에 비해 특별히 난이도를 고려하고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을 끌 만한 내용을 선정해 동기유발을 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고와 표현 I』과 같이 자료와 연습 문제만 제시된 형태의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면, 단위 목표의 설정에서부터 수업 방식에 대한 연구, 수업 내용 준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담당 강사가 혼자 해야 하기 때문

에 막중한 수업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따른다. 또한 담당 강사에 따라 편차가 큰 강의가 진행될 여지가 있어 통일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교과와 정체성을 흐리게 할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형태의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담당교수가 강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수업에 관한 지침서가 따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²²⁾ 지침서에는 교수자의 재량도 감안하여 간단한 학습 목표와 읽기 자료와 관련된 배경 지식, 연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내를 담는 것이 좋을 듯하다.

통합교육에서는 실제 현실에서 부딪칠 수 있는 종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지식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에 대해 비판해보자”라든가 “~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에 대해 생각해보자”와 같은 유형의 연습 문제는 해결 방법을 자세히 제시해주거나, 단계적 질문을 통해 답을 유도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절차적 지식을 가르쳐주지 못한다.²³⁾ 그러므로 연습 문제를 제시할 때는 ‘안내된 실행’(guided practice)을 활용하여 큰 문제를 여러 개의 단계적 문제로 나누어 준다거나, 모범 답안 등을 예시함으로써 학생들이 단계별로 문제를 쉽게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22) 교사용 지침서를 마련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의 담당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을 자주 개최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수업 운영 방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수업 간의 편차를 줄이고 공통의 학습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3) ‘거북선을 만든 사람은 이순신이다’와 같이 단순히 어떤 사실을 전달해주는 지식을 명제적 지식이라 한다. 이와 달리 절차적 지식이란 이미 알고 있는 명제적 지식이나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지식을 말한다. 글쓰기는 문제해결과정이다.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성하여 체계화시켜서 적절하게 언어로 표현해내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제대로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사고와 표현> 교과에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절차적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글쓰기교육이 따로 행해지기보다 통합되어 행해지는 <사고와 표현> 강좌의 특성상 글쓰기 교육은 연습문제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글쓰기 이론들을 연습문제에 단계별로 용해시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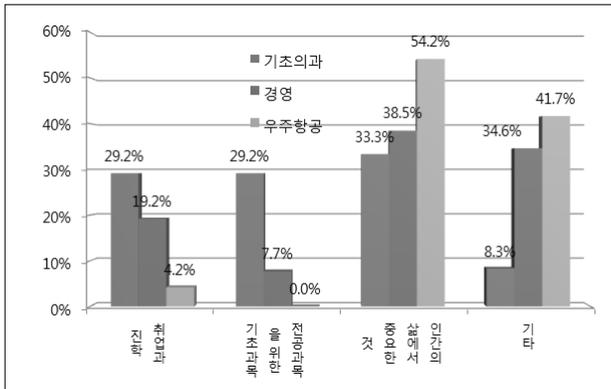
통합학습은 부분적 학습의 총합 이상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각의 영역을 분리하여 학습시키기보다는 통합된 상태에서 상호 보완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고와 표현 I>에서 글쓰기 영역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 경향이 있다. 이것이 <그림 2>에서 이 수업을 통해 향상된 능력 중 글쓰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이유이다. 이것은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중심으로 토론하는 수업이 중심에 놓이다보니 상대적으로 글쓰기에 할애된 시간이 부족했었다는 데 기인한다. 이러한 점은 대다수의 수업에서 드러난 양상이기도 한데²⁴⁾, 강의 시작 전 워크숍 때 2학기 수업에서 글쓰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미리 고지된 데도 원인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통합교육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문제는 주당 2시간 15주 수업으로 기초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합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 예컨대 1학기는 기초적인 이론 교육에 중점을 두고, 2학기는 종합적인 실체에 중점을 두는 한편, 한 학기 심화 과정을 더 마련해 세미나 형태의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방법도 좋을 듯하다.²⁵⁾

<사고와 표현> 교과가 지닌 실용적인 목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부

24) 이 점은 종강 후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고와 표현 개선 연구 보고서에도 나와 있다.

25) 세미나 교육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사고하기 등을 통합하여 심도 있게 진행하는 수업이다. 전공을 세미나 교육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으며, 교양 차원에서 할 수도 있다. '사고와 표현'을 일찍 활성화시킨 숙명여자대학교에서 2009년부터 개설 운영하는 "인문학독서토론" 강좌는 교양 영역의 세미나 교육이다. 교과 개설 취지에 대해 '사고와 표현'에서 추구하는 비판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능력은 고도의 반성적인 사유능력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한 두 학기의 강좌로 향상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신상규, 『독서토론을 통한 통합인문학교육』, 앞의 글, 66쪽) 이것은 타 대학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교과는 저학년보다는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춘 고학년 때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족하다는 점도 향후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림 5>는 <사고와 표현> 교과가 필요한 이유를 묻는 질문이다.



<그림 5> <사고와 표현> 과목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 막대는 기초의학부, 가운데는 경영학부, 마지막은 우주항공학부의 설문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프다. 기초의과학부 학생들이 네 항목에 골고루 표한 데 비해서 타 학부 학생들의 대다수는 “인간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나 기타 항목에 집중적으로 표하고 있다²⁶⁾ 기타를 택한 학생들이 서술형으로 적은 내용도 “생각의 폭을 넓혀주므로”라든가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으므로” 등과 같은 내용이 많아 <사고와 표현> 교과를 통해 성취할 수 있는 목표 인식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수강 학생들이 신입생이라 대학의 학문 활동이나 개별 교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취업에 대한 부담감이 아직은 적은 시기라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본다. 하지만 학습 목표가 구체적이고도 실용적일 때 학습 동기

26) 기초의과학부 학생들의 설문 결과가 타과에 비해 다른 양상을 보인 것은 이 학부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 Meet나 Deet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가 훨씬 더 유발되어 학습에 대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교과외의 실용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강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방법 모색도 필요하다. 발표 중심의 수업에서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학생은 소외될 뿐 아니라, 평가에서도 열악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들을 발표나 토론의 장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학습 방법에 변화를 주거나, 2명 또는 3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집단을 활용한다거나, 흥미 있고 관심이 가는 다양한 주제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 모색이 절실하다. 이와 함께 사이버 공간의 댓글이나 글쓰기 후에 제공되는 담당 교수의 개인적인 피드백 등을 통해 담당교수와 학생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학생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해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훨씬 높아진다는 사실은 수업 경험을 통해 쉽게 확인된다.

차시 학습을 위해 미리 읽기 자료를 읽고 요약하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 과제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이공계열 학생들은 인문학 관련 텍스트 읽기를 힘들어 하고 있다. 과제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수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묘책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4. 남은 과제

사고와 표현 관련 교과는 다른 학문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 교과이면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이나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교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용적

목적을 떠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교과이기도 하다. 특히 과학기술이 발달함으로써 TV나 컴퓨터, MP3 등과 같은 기기에 빠져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는 현대인들에게 이들 교과는 오늘날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열린 장에서 구성원들과 함께 소통을 해나가면서 더불어 사는 인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기회를 부여한다.

그런데 사고와 표현 관련 교과의 확산화가 사회적 수요와 대학의 요구가 맞물리면서 형성된 현상이다 보니 이들 교과가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사고와 표현의 의미에 대한 성찰보다는 지나치게 실용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운영된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 예컨대 학생들은 대학과 직업 사회의 일원이기 이전에 한 인간이다. 그러므로 각자가 안고 있는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고 이를 성찰하는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 인간 본성에 관한 고전 작품을 읽고 자신의 무의식 속의 문제를 끌어내고 그에 관한 글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물론 이와 같은 방식은 개인적 소통 방식에 제한될 우려가 있지만²⁷⁾,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성찰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은 도외시한 채 논증적 의사소통 훈련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형태의 수업에서는 자칫하면 다양한 개인차를 무시하고 획일화된 보편적 지식이나 수사 전략을 전수할 우려가 있다.²⁸⁾ 또한 아직은 논증에 익숙하지 않은 신입생들에게 흥미나 필요성, 동기 등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표현 방식을 강요할 경우 심리적인 위축을 불러와 교과에 대한 흥미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

27) 신선경(2005), 앞의 글, 55쪽.

28) 모든 의사소통 상황에서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 지식이나 수사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존재한다고 해도 이해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그것은 무력한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위의 글, 60~61쪽)

그러므로 논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교과 운영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혀나가면서 학습 구성원들은 상호 간에 사고의 틀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발견해 나가려 한다. 그런데 사고와 표현 관련 교과에서 행해지는 토론 방식이 아직도 상당수 형식논리학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형식논리학적 접근으로는 다양한 입장 차이를 지닌 개인들이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어렵다.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카임 페렐만 등의 신수사학 이론에서는 현대의 수사학은 설득의 수사학을 넘어 커뮤니케이션의 오해와 그 처방에 대한 것이 되어야한다고 말한다. 데카르트의 형식논리학에 토대한 과거의 수사학이 ‘말의 전쟁 이론’이었으며, ‘전투적 충동에 의해 항상 지배’된 폭력적인 것이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모든 논의가 청중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심리적 조건들과 사회적 조건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존의 양자택일의 극단적 사고를 거부하고 열린 자세로 타자와의 대화를 통해 배워가야 함을 강조한다.²⁹⁾ 오늘날과 같은 다원화 사회에서 상대방의 이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투쟁적인 설득의 수사가 아니라 공감의 수사가 필요하다. 학술적 의사소통에서 갈등이 야기될 때는 대체로 서로 간에 공감적 이해가 불충분한 경우이다. 서로에 대한 이해나 협력적 태도가 부족할 때 폭력적 담론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29) 전성기, 「소통의 수사학과 피동적 글쓰기」, 『사고와 표현』 창간호(사고와표현학회, 2008), 30~31쪽과 마에치슬라브 마넬리/손장권·김상희 옮김, 『페렐만의 신수사학』(고려대학교출판부, 2006), 8~11쪽 참조. 페렐만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크로스 화이트는 ‘이성의 수사학’을 통해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해결하는 가능성을 강화하고 현대 철학 및 글쓰기 교육이 봉착하고 있는 위기로부터 벗어나 희망을 발견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제임스 크로스화이트/오형엽 옮김, 『이성의 수사학』(고려대학교 출판부, 2001)

이것은 의사소통을 상호 교섭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일맥상 통한다. 상호 교섭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 의사소통에서 전달자와 수신자는 구별되지 않는다. 전달과 수용의 차원이 아니라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를 이해해나가는 것이 의사소통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의사소통의 목적을 언행적 차원뿐만 아니라 관계적 차원에도 둔다. 정보전달이나 설득과 같은 언어사용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구성원들이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³⁰⁾ 그러므로 사고와 표현 관련 교과에서는 인간의 삶이 인간 상호 간의 진정한 소통에 기인하고 있으며, 학문 활동은 이해와 협력을 발판으로 행해진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원화한 현실에 맞추어 공감적 수사에 기초한 다양한 수사적 방식을 익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의사소통 교육은 개인에게 올바르게 적용되었을 때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임상 치료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학습자 개개인의 변화를 면밀히 고찰하고,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의 방향과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실제 수업 현장에서 다양하게 전개되는 담론 중 오해나 갈등을 일으키는 유형에는 어떠한 것이 있고, 이를 초래한 원인이 무엇인가도 지속적으로 진단해야 한다. 개별적 관찰과 실험 결과가 축적될 때 사고와 표현 관련 교과도 체계화할 것이라 여겨진다.

30) 대인의사소통의 연구 접근 방식은 화자와 청자의 작용 방향에 따라 작용적 관점, 상호 작용적 관점, 상호교섭적 관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작용적 관점은 대인 의사소통을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보고 있으며, 상호 작용적 관점은 화자와 청자의 작용과 반작용으로 보고 있다. 이에 비해 상호 교섭적 관점에서는 수신자와 전달자의 구분 없이 두 사람이 동시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신하는 것으로 이해한다.(한철우 외, 「표현·이해 교육 연구의 방향과 과제」, 『국어교육학연구』 제22집, 국어교육학회, 2005.4, 42~45쪽)

5. 맺음말

사회적 요구와 대학의 요구가 맞물리면서 대학마다 사고와 표현 관련 교육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초창기라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본고는 이 중에서도 교과와 방향 정립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이들 교과와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사고와 표현의 관계 맺음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이들 교과와 방향을 점검해 보고, 조선대학교의 <사고와 표현 I> 수업 운영 사례를 통해 이를 확인해보았다. 특히 조선대학교 <사고와 표현 I>이 지향한 통합교육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조선대학교 <사고와 표현>의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운영을 계획하는 다른 대학에 시사점을 주고자 했다. 교육의 결과는 수요자인 학생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인 만큼 강의 종료 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의 결과도 중요한 분석 자료로 참고했다.

사고에서 표현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개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인간의 내면에 지닌 여과장치의 차이로 개인마다 사고의 틀은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사고와 표현 관련 교육에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식하고, 발표와 토론을 통해 보편적 의미를 발견해가도록 해야 한다.

<사고와 표현 I>이 거둔 성과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말하기’ 능력의 향상이다. 텍스트를 읽고 토론하는 동안 학생들은 학습 구성원들의 차이를 인식하고, 차이의 원인을 찾아내며, 의미를 구성해나가게 되었고, 이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의사소통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글쓰기 영역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짐으로써 통합학습의 취지를 백분 효과적으로 살리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것은 주당 2시간 15주라는 짧은 시간으로는 기초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통합학습을 효과적으로 시키기 어렵다는 데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모처럼 활성화하고 있는 사고와 표현 관련 교과가 대학 사회에 긍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요를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는 수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이들 교과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 수 있는 교과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현대 사회는 갈수록 복잡하고 다원화해 가는데, 전자 기기에 함몰되어 정상적인 소통방식을 잃어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교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김경숙 외 13인, 『사고와 표현 I』,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9.

2. 논문

- 나은미, 「대학에서의 글쓰기 교육 현황 분석」, 『우리어문연구』 32권, 우리어문학회, 2008, 7~34쪽.
- 도정일, 「실천인문학의 한 방법」, 『한국사고와표현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사고와 표현학회, 2007.10, 5~11쪽.
- 민태호, 「구성주의 페러다임의 측면에서 본 작문 이론의 전개 동향」, 『초등교과교육연구』 2집,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1999, 62~95쪽.
- 박만엽, 「서울시립대학교 <발표와 토론> 수업 운영에 대한 사례보고」, 『사고와표현』 창간호,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08.11, 183~227쪽.
- 배식한, 「성균관대학교 사고와 표현 교육의 발전 방향」, 『한국사고와표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07.12, 51~71쪽.
- 손동현, 「사고와 표현의 문화학」, 『사고와 표현』 창간호,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08, 11~26쪽.
- 신상규, 「독서토론을 통한 통합인문학교육」, 『한국사고와표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08.10, 65~85쪽.
- 신선경, 「대학 글쓰기 교육의 방향 정립을 위한 제언」, 『관악어문연구』,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2005, 49~65쪽.
- 이광모,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토론’과 ‘글쓰기’의 의미와 방향」, 『철학과 현실』 통권 67호, 철학문화연구소, 2005.12, 162~172쪽.
- 이성희, 「한국어 교육에서의 읽기·쓰기 통합 교육 연구」, 『이중언어학』 제37호, 이중언어학회, 2008.6, 113~131쪽.
- 이은미, 「국어능력 신장을 위한 영역통합 수행평가 방안」, 『새국어교육』 28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009, 279~298쪽.
- 이재현 외 3인, 「우리나라 대학의 사고력 및 표현력 관련 기초 교양 과목의 현황과 발전 방안 연구」, 『사고와표현』 창간호,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08.11, 145~181쪽.

- 이진남, 「<사고와 표현> 과목의 정체성과 방향성」, 『사고와표현』 창간호, 한국사고와 표현학회, 2008.11, 55~90쪽.
- 정광순,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통합교과교육의 방향」, 『초등교과교육연구』 10권,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2009.1, 1~22쪽.
- 정희모, 「MIT 대학 글쓰기 교육 시스템에 관한 연구」, 『독서연구』11호, 한국독서학회, 2004, 327~356쪽.
- 조희정 · 나은미 · 이상혁, 「한성대학교 <사고와 표현> 교육의 현황」, 『사고와표현』 창간호,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08.11, 91~113쪽.
- 하병학, 「사고와 표현 교육의 시대적 함의」, 『한국사고와표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07.10, 12~26쪽.
- 한철우 외, 「표현 · 이해 교육 연구의 방향과 과제」, 『국어교육학연구』제22집, 국어교육학회, 2005.4, 31~96쪽.
- 홍성욱, 「인문학적 사유의 창조성과 실용성」, 『동향과 전망』통권 제44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00.3, 212~231쪽.
- 홍인선, 「통합 교과형 논술 교육의 체계화에 대한 연구」, 『청람어문교육』37권, 청람어문교육학회, 2008.6, 143~181쪽.

3. 단행본

- 권낙원 · 김동엽, 『교수-학습 이론의 이해』, 문음사, 2005.
- 민영순 외, 『교육심리학』, 숙대출판부, 1980.
- 변영계, 『교수 · 학습이론의 이해』, 학지사, 1999.
- 이재승, 『글쓰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과정 중심 접근』, 교육과학사, 2002.
- 아나톨 라포포트, 안동환 옮김, 『과학과 인간의 목표』, 한국문화사,
- Gail E. Myers & Michele Tolela Myers, 임철성 옮김,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집문당, 1995.
- 린다플라워, 원진숙 · 황정현 옮김, 『글쓰기의 문제해결전략』, 집문당, 1998.
- 모티머 J. 애들러, 민병덕 역, 『독서의 기술』, 범우사, 1986.
- 제임스 크로스화이트, 오형엽 옮김, 『이성의 수사학』,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1.
- S. I. 하야카와, 김영준 역, 『의미론』, 현음사, 1982.

Abstract

Directions and Challenges of the University's Thinking and Expression Teaching

Gwak, Gyung-Sook

Recently creative thinking, critical thinking, problem-solving skills are becoming more important for university students. The perceptions that above skills can be improved by teaching the subject 'thinking and expression' has spread widely at the various universities. But since the start, yet it is undergoing a lot of trial and error.

Among these the direction of the curriculum was explored. To do this, first by examining the pattern of relationships forming, the information about the curriculum content was explored, and Chosun University's 'thinking and representation I' were analyzed.

Especially for exploring the future directions of the subject,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integrated education-oriented Chosun University's 'thinking and representation I' were analyzed. And to give assistance to other universities which have similar subject operation plan. Because the results of the teaching can be found from students' assessment, survey results are utilized as an important lecture monitoring tool.

The process from thinking to expression that represents the difference between individuals is complicated. Because of differences in filtration system of each human being each individual's framework of thought differs. Recognize the difference between each other, and through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the universal meaning should be to found.

Improvement of Students' speaking ability that students have felt the most difficult area was a result of this course. While reading the text and discussing, students recognize the differences among members, find out the

cause of this difference, and make up the meaning. Through these critical thinking and communication skills of the students could improve. Exposed several problems with this curriculum, the meaning of integrated learning should be vitalized.

The direction sought in this paper of the subject 'thinking and expression' may partially overlap with other universities. When these results come together to form even more firm consensus, this may lead to better quality education

Key-words : Critical Thinking, Communication skills, thinking and expression, Integrated education, Case study of Chosun University

곽경숙

조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초빙객원교수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54 새한아파트 107동 1302호

전화번호 : 011-9665-3687

전자주소 : ht153@hanmail.net

이 논문은 2009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09년 12월 18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09년 12월 19일 게재 확정됨.